

KIA 한승혁의 잠재력, 내년 시즌 관심

스토브리그서 타구단 트레이드 제안 고사

마지막 경기서 5.1이닝 무실점...내년 기대↑

한승혁의 2019시즌은 어떨까? 2018시즌이 끝나고 시작한 스토브리그에서 KIA 우완투수 한승혁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이 있었다. 시즌을 마치고 한승혁과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은근히 타진했다. 데뷔 이후 150km가 넘는 볼을 던졌지만 제구와 안정감의 부재로 제몹을 못했. 그러나 올해는 변화와 가능성을 보이자 드러내자 경쟁자들도 관심을 가진 것이다.

트레이드는 KIA의 고사로 성사되지 않았다. KIA 역시 한승혁이 올해 보여준 선발투수의 잠재력을 간과할 수 없었다. 한승혁은 개막 초반 선발투수로 변신해 2경기(선발 19경기)에 등판해 7승3패, 평균자책점 5.83을 기록했다. 자신의 가장 많은 이닝(88이닝)과 4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

확실한 선발투수의 모습은 아니

었지만 7승을 거두었고 한화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5.1이닝 무실점 역투로 와일드카드 티켓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분명히 데뷔 이후 가장 기여도가 높은 시즌이었다. 넥센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 팀이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해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서 내년 시즌의 기대감을 높였고 투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작구와 포크 위주의 투피치 투구에서 슬라이더와 커브까지 섞어 던졌다. 변화구의 비율을 높이자 제구도 잘 됐고 타자들을 노릴수도 피해갔다. 2019시즌을 향해 의미있는 전진이었다. 나름의 수확도 거두었다.

한승혁이 아직은 선발지리를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스프링



캠프부터 치열한 선발 진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제이콥 터너, 조 윌런드, 양현종을 제외하고 남은 두 자리를 놓고 윤석민, 임기영 등과 다투야 한다. 물론 경쟁과 관계없이 선발 등판의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승혁은 내년이면 벌써 입단 9

년째를 맞는다.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게 활약도 높여야 하는 중견급 투수이다. 내년의 성과도 제구력을 포함한 투구의 안정성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 한승혁이 올해의 경험을 앞세워 주축 투수로 진화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벤틀호 막내 조영욱 “아시안컵 최종엔트리 승선에 도전할 것”

올해 K리그 데뷔한 1999년생 유일한 10대 막내

축구대표팀의 막내 조영욱(19·서울)은 유일한 10대다. 맏형 이영(32·전북)과 13세 차이. 조영욱이 10대의 패기를 앞세워 아시안컵 최종엔트리 승선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영욱은 12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앞두고 “이번 훈련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아시안컵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영욱은 지난달 끝난 19세 이하(U-19) 아시아 챔피언십의 준우승 멤버로 앞서 올해 1월에는 23세 이하(U-23) 아시아 챔피언십에도 출전했다. 또래보다 월등한 경쟁력으로 발반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파울루 벤틀 감독이 울산 동계 훈련에 조영욱을 소집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세밀한 검증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연습 파트너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는 코칭스태프만 안다.

조영욱마저 울산 소집 명단을 보고 “처음 봤을 때 19세 명단인 줄 알았다. 그런데 위에 형들이름을 보니까 황의조 형이 있어서 믿기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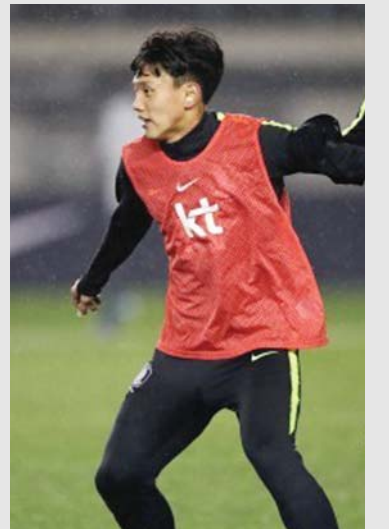
일단 벤틀 감독은 “누가 아시안컵 명단에 선발될지 결정된 게 없다. 동계훈련에서 경쟁하며 의지와 실력을 보여준다면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조영욱은 20세 이하(U-20) 대표팀에서 37경기에 출전해 18골, U-23 대표팀에서 9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다. 골 냄새를 잘 맡는다.

조영욱은 “어제 처음 훈련을 했는데 감독님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끄덕 TV에서만 보던 형들이 있어서 기뻐했다”며 “이번만큼은 나도 이 팀의 일원이 되고 싶다. 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솔직히 (예상되는 선발) 비율로 따지면 향후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훈련만큼 아시안컵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며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조영욱은 황의조(갑바 오사카)가 버티고 있는 원톱과 측면 공격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풍부하



다. 11일 첫 훈련에서는 원톱 자리에서 훈련했다.

공교롭게 이날 인터뷰 대상자가 황의조, 조영욱이었다. 둘은 라커룸에서 대기하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조영욱은 “(황)의조 형이 성남에서 뛰던 시절부터 친부능력, 결정력 같은 것을 봤고 싶었다”며 “마침 둘만 있어서 기회가 싶어 올해 몇 경기에 뛰었는지 슈팅을 때릴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최고의 공격수다. 초면인데도 잘 대답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령대 대표팀에서 나이 많은 형들과 함께 지낸 경험이 많지만 A대표팀은 또 달랐다. “형들 나이가 두 세살 많은 게 아니다. (이)영이 형은 열세 살 차이이다. 20세 대표팀 때처럼 까불고 그러진 못할 것 같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 훈련을 했지만 형들을 보면서 여유가 있고 경량이 많은 것이 느껴졌다”며 “나는 젊다. 많은 활동량과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자신감 있게 하겠다”고 더했다.

조영욱은 올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새내기다. K리그1(1부리그)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총 32경기에 나서 4골 2도움을 올렸다. 팀의 성적 부진으로 벤틀 끝에 물렸지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다.

“내년에는 서울이라는 팀이 이 상황까지 오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선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동계훈련부터 열심히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프로농구서 공격순서·방향 ‘거꾸로’ 해프닝



12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전주 KCC의 경기에서 김승기(가운데) 인삼공사 감독이 심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축구, 농구, 핸드볼 등 그라운드 혹은 코트를 두고 상대의 골대에 득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는 전반과 후반에 공격 방향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다.

12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농구 전주 KCC-안양 KGC 인삼공사의 경기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다.

후반의 시작점이 되는 3쿼터에서 두 팀이 공격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전반(1·2쿼터)과 같은 쪽으로 경기를 펼친 것이다.

체육관 분위기를 기준으로 KCC는 전반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했다. 3쿼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해야 하지만 KCC는 여전히 전반과 같은 쪽으로

공을 노렸다.

3쿼터 시작 7초 만에 송교창(KCC)이 레이업슛을 성공하자 심판은 급하게 휘슬을 불러 경기를 중단했다. 공격 방향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양 팀 벤치와 선수들이 동요했다.

심판진은 흘러간 시간과 송교창의 득점을 인정하고, 코트 방향만 바꿔 경기를 속개했다. 방향이 틀

12일 KCC-인삼공사 경기, 3쿼터 공격 순서·방향 모두 반대로 시작 두 팀·선수·심판 모두 놓쳐...KBL “경기 운영 미숙으로 징계 예정”

렸지만 정상적인 진행으로 인정할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KCC의 자책골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심판진은 경기 규칙을 적용해 최선의 대응을 했다.

KBL 경기규칙 제44조 “정정할 수 있는 실수 2항에 따르면, 실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발생한 파울, 득점, 경과된 시간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공격 방향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 KCC가 3쿼터에서 먼저 공격권을 가졌지만 원래는 인삼공사의 것이다. 공격 순서도 잘못됐다.

이 역시 심판진이 놓쳤지만 4쿼터에서 인삼공사가 먼저 공격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상쇄됐다.

보기 힘든 실수 2개가 동시에 발생한 셈이다. 가장 큰 과실은 심판에 있다. KBL 관계자는 “실수를 인지하고 있다.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고 했다.

코트 안팎에 있던 코칭스태프, 선수 등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장면도 놀랍다.

현역 시절 미국 국가대표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고,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스테이시 오그먼 KCC 감독은 경기 후 “구글에 검색해 봐도 없을 일이다”며 웃었다.

이 경기는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정현의 위닝샷을 앞세운 KCC가 111-109로 승리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원담 구례군은 지리산자연, 장새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전-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